

'사회주의적 인간상' 창조에 역점

북한의 창작문학

任軒永

문학평론가

비교해야 될 경쟁상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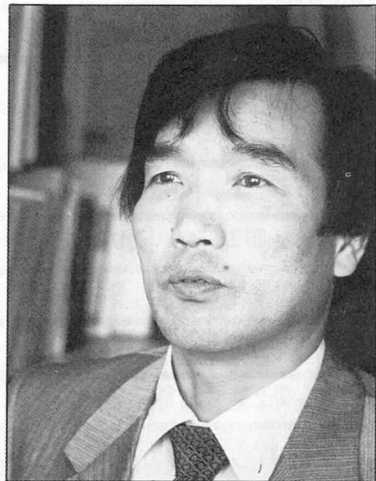
오늘의 북한 창작문학은 불완전한 우리의 민족문학의 완성체를 위한 다른 한쪽임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 비교대상은 민족문학사적 맥락으로 보았을 때 분단상태가 빚은 한국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한의 창작문학은 비교해야 될 경쟁상대가 아니라 민족공동체를 위한 정서적 공동제작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한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권력이 만든 창작문학에 대한 금기조항도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의 경우, 임화·김남천 등은 물론 한설야를 비롯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금기된 창작문학 또는 전면부정적 평가자세를 절대적 평가의 시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창작문학에서 분단상황이 빚은 모든 제약과 금기조항을 제거해 버리고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두가지의 커다란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일제 식민지대에 카프문학을 했던 작가·시인들에 의한 창작물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대에 의한 창작물이다.

북한은 이런 세대교체의 시기구분을 제5차 당대회(1970. 11) 전후로 잡고 있다. 이미 1966년을 전후해서 강조되었던 주체사상에 따른 창작문학의 흐름은 이 무렵에 이르러 세 세대의 문화예술인의 완전교체를 선언하게 된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식민지시대의 지식인·예술인의 주체사상화의 완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분기점 삼아 북한의 창작문학은 눈에 띌 만큼 달라진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형성화한다는 창작방법론의 변모는 가치평가 척도가 바뀌어짐과 동시에 개인창작 못지 않게 집체창작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그 소재도 현격한 변모를 가져왔다.

북한의 주요 창작물을 수록해 놓은 「해방 후 10년간의 조선문학」(1955)을 보면, 중국·소련과의 우호관계에 비중을 크게 한 점, 토지개혁 등 8·15직후의 사회개혁상에 초점을 둔 점, 한국의 단독정부 수립을 극력 반대한 점 등을 다룬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1959년에 간행된 「조선문학통사」 하권에 수록된 작품들을 보면, 훨씬 격렬한 전투성과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김일성의 각종 영웅적인 행적을 다룬



임현영씨

것을 전자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도 드러난다.

이 두가지 서술체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조선문학개관」(박종원·류만 지음, 1986) 제2권이 보여준다. 여기서는 김일성의 영웅적 지도자상을 다룬 작품들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두가지 책에서는 제외되었거나 평가받지 않았던 작품들이 대거 재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들이 높이 평가받는다. 박세영의 「애국가」나 리찬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위의 세 책이 모두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한설야·리기영의 소설, 조기천·김복원의 시 등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기적 변모에도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창작이란 절대적 평가의 여과장치를 거친 작품임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북한의 창작문학을 검토하는 방법론은 이제까지의 다분히 교조적이거나 반복적인 자세를 벗어나 절대적 평가와 사회주의적 미학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가를 절충하는 단계로 방향전환해야 할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첩보소설 식의 영웅적 투쟁기가 주류

이렇게 볼 때 오늘의 북한 창작문학은 적어도 1970년대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평가단계가 아니라는 가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에 알려진 「불멸의 력사」 총서나,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자위단원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일련의 작품

북한의 창작문학의 주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이념성 확립과

사회주의적 인간상의 창조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로 집약된다.

물론 많은 창작품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보고

북한문학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들은 당대적 당위성에 의해서 이 시기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는 북한이 내세우는 걸작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전 북한 문학사를 통틀어 앞으로 통일 이후에까지 남아야 할 창작문학의 걸작을 재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시선을 보다 확대하여 오늘의 북한이 금기시하고 있는 모든 작품을 그 대상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창작문학은 이런 뜻에서 주제와 소재에 따른 분류와 접근·분석·평가 방법이 매우 편리할 수가 있다. 즉 가치평가 방법론은 현격히 달라져 왔으면서도 그 주제는 시종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이념성 확립과 사회주의적 인간상의 창조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란 두가지로 집약되는 것이었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문학작품으로는 「피바다」 등 3대 걸작과 「불멸의 력사」 총서, 그리고 리기영의 「두만강」,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장선으로는 한설야의 「대동강」 「승냥이」 「사랑」 등과, 민병권의 서사시 「어려리별」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창작물은 일제 식민지시대부터의 각종 노동자·농민운동을 다룬 것부터 분단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적 노력영웅상을 그린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일제하의 노동운동을 다룬 걸작으로는 「설봉산」(한설야), 「등대」(리북명) 등이 있으며, 사회주의적 인간상의 혁명적식을 다룬 작품은 「시련 속에서」(윤세중), 「석개울의 새봄」(천세봉), 「평양 시간」(최학수) 등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많은 창작품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북한문학을 오도해 버릴 여지도 크다. 그러나 이런

공식성이 북한문학을 과소평가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로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창작물은 이런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바탕으로 공식성 위에서 작품마다 특이한 영웅적 투쟁성의 세심한 구성력이 독자들의 관심의 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첩보활동을 다루는 식의 이야기가 북한 창작물의 커다란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70년대를 고비로 세대교체 뒤의 북한문학이 어떻게 변모해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서정성 짙은 소설 늘어나는 추세

80년대 이후 북한소설에는 사회주의체제의 안정기를 맞은 서정성 짙은 소설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 「단조장의 메아리」(김련화)나 「출항의 날에」(최용규) 같은 것은 그처럼 단조로운 생산투쟁의식에 대한 고취의 단계를 넘어선 사랑과 투지를 조화시킨 서정미를 느끼게 한다. 「단조장의 메아리」는 남녀관계와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대비되어 전개되는 소설의 한 전형을 이루는데, 이것은 남녀의 사랑을 엄격하게 제한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 독자들에게 충격일 수도 있다.

당관료에 대한 완곡한 비판의식도 꽤 드세게 나타난다. 「출발점」(김정)은 철도수송사업에서 관료성이 배어서 일선 시골역장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의례적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가 도리어 당사업을 망치는 꼴로 나타났음을 꼬집는다.

그러나 북한소설들이 지닌 특색인 무갈등론은 사건전개가 단조로운 것으로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아마 오늘의 한국 독자들에게 약간의 짜증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갈등이란 북한의 경우는 철저한 변증법적 사건전개방법론의 적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모든 소설의 구성방법은 변증법적 전개에 의한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생활이란 것이 임금투쟁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아닌 생산향상투쟁으로 그 쟁점이 바뀌고 보면, 자연 사건전개는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노력경쟁과 이를 둘러싼 찬반의 갈등이 약간 있을 뿐이다.

사회구조가 다른 오늘의 한국 독자에게 북한소설이 어떻게 수렴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